늦캉스·추캉스족 모여라… 힐링 가득 담은 호텔패키지

〈늦은 바캉스〉 〈추석 바캉스〉

인터컨티넨탈코엑스 몰캉스 혜택
위호텔제주 사우나·룸업그레이드
켄싱턴 호텔 한강 크루즈 패키지

WE호텔 제주

이랜드 크루즈 /켄싱턴 호텔

예년보다 빨라진 추석으로 인해 호텔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여름 성수기를 피해 바캉스를 즐기려는 '늦캉스(늦은 바캉스)족'과 추석·가을을 일찌감치 준비하는 '추캉스족'까지 동시 공략하고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특급호텔들은 추석 연휴 한정 패키지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대부분 추석 기간(9월12일~14일)을 포함해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특별한 혜택을 포함하거나 여유와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가을 정취를 담은 패키지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용권·조식권… 풍성한 혜택

콘래드 호텔,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추석 패키지에 혜택을 추가해 선보인다.

콘래드 호텔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객실 예약 고객에게 9만 원 상당의 제스트 뷔페 2인 무료 조식 바우처를 증정한다. 또한, 선착순 고객 20명에게 아쿠아플라넷 63이용권과 63아트이용권이 포함된 '63종합권'을 증정한다.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몰캉스(쇼핑몰+바캉스)'를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호텔과 연결된 파르나스몰에서 사용 가능한 5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해당 상품권은 호텔 내 '그랜드 키친'의 2인 조식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코엑스 내 아쿠아리움 입장권(5만6000원 상당) 2매를 혜택으로 제공한다. 또 는호텔 1층에 위치한 뷔페 레스토랑 브래서리에서 2인 조식으로 즐길 수 있다.

양 호텔의 패키지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바쁜 명절 'NO'…추석엔 힐링을

호텔 추석 패키지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힐링'이다. 북적이는 명절 분위기를 벗어나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고객들을 겨냥했다.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연박 할인 등이 포함돼 느긋한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명동의 '다(多) 드림' 패키지와 위(WE) 호텔 제주의 '행복 한가득' 추석 패키지는 레이트 체크아웃(오후 2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이비스 명동의 경우, 9월 8일부터 19일까지 한정 기간동안 패키지를 선보이며, 얼리 체크인(오후 12시), 세미 노천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

위 호텔 제주의 '행복 한가득' 추석 패키지는 9월 11일~15일 운영되며 연박 혜택이 풍성하다. 2연박 시 CGV 영화예매권 2매를 제공하고, 3연박 시 스위트룸 무료 업그레이드 1회가 제공된다. 이밖에 천연화산암반수 사우나 무료 이용, 메디필 로얄로즈 모델링 팩 1세트 등이 포함됐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는 9월 12일~15일까지 와이너리 투어가 포함된 '문라이트 와이너리 패키지'를 선보인다. 제주의 멋드러진 풍경을 배경으로 11종의 와인을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2박 이상 이용 시 사우나 2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 가을은 '늦캉스'…정취 즐겨볼까

호텔들은 늦캉스족을 위한 여름 패키지의 기간을 확대하거나, 추석 한정 패키지와 가을 패키지를 함께 내놓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오라카이 청계산 호텔은 뒤늦은 휴가를 계획하는 '늦캉스족'을 위해 9월 20일까지 여름 패키지를 선보인다. 청계산을 보며 즐길 수 있는 수영장과 루프탑 트랙 이용을 포함하는 한편 2, 3, 4인 등 인원별 맞춤형 패키지를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전국 주요 명소에 위치한 켄싱턴 호텔은 추석 패키지와 함께 가을 패키지를 내놨다. 여의도, 평창, 설악, 남원예촌, 부산 등 5개 지점은 9월 9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전통·미식·힐링을 콘셉트로 추석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여의도 지점에서는 가을을 겨냥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리버 선셋 크루즈 패키지'를 지난 19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한강 유람선인 이랜드 크루즈 승선권(2인)과 와인 등이 포함됐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편의점서 납부한다

GS25 통합하이패스 서비스 제공

편의점 GS25가 하이패스 토털(Total) 서비스를 제공하며, 완전한 모빌리티(자동차 등의 이동수단)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GS리테일은 20일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최초로 오는 23일부터 전국 1만3000여 개의 GS25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GS25는 이번 미납 통행료 조회, 납부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존에 선보인 하이패스 전자카드 충전서비스,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 판매와 더불어 통합 하이패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GS리테일과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고속도로 영업소와 휴게소 등에서 제공하는 하이패스 서비스를 전국 GS25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 고객 편의성은 높아지고, 매년 증가 추세인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건수 또 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훈 GS리테일 생활서비스 부문장은 "미납 통행료를 줄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가사노동 줄여주는 생활밀접 가전 '쑥쑥'

전자랜드 에어프라이어 566%↑
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 등 인기

전자랜드는 생활 밀접형 가전제품인 에어프라이어,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의류관리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랜드의 에어프라이어 판매량은 2018년 1월 판매 개시 이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8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255%, 2018년 하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에는 143% 신장했다. 올해 7월까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6%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판매량만 해도 2018년 전체 판매량보다 약 90% 많다.

식기세척기는 올해 7월까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0%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판매량보다 약 16% 많은 수준이다.

전기레인지와 의류관리기도 인기다. 올해 7월까지 전기레인지와 의류관리기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 147% 높다.

전자랜드는 '워라밸' 시대를 맞아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고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가전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서 기자

CJ ENM 오쇼핑, K팝 타고 美에 K-패션 알려

패션 PB '씨이앤', 케이콘 참가
미국 밀레니얼·Z세대 공략

CJ ENM 오쇼핑부문이 단독 패션 브랜드 '씨이앤(Ce&)'을 앞세워 미국 밀레니얼과 Z세대에 K-패션을 알렸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지난 16~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케이콘(KCON) 2019 LA'에 참가해 '씨이앤 인 로스앤젤레스'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 운영 3일간 총 2만4000여명의 팬들이 방문해 K-패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씨이앤은 LA지역 K-팝 팬들이 배지나 포토카드 등으로 의류와 가방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점에 착안해 자신이 구매한 티셔츠에 K-팝 아티스트의 이름과 노래가사 등을 핸드젯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이벤트를 열었다. 덕분에 행사 기간 동안 '씨이앤 레터링 실켓 티셔츠'는 약 5000장이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열린 '케이콘 LA 2018' 때보다 약 30% 늘어난 수치다.

CJ ENM 오쇼핑부문 씨이앤 담당자는 "씨이앤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인 지 1년 만에 브랜드에 대한 해외 팬들의 관심과 호감이 확대됐음을 체감했다. 특히 이번 씨이앤 부스를 통해 K-패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해외 팬들이 많아 고무적"이라며 "씨이앤을 국내 유통채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패션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CJ ENM 오쇼핑부문은 지난 2009년 패션 편집숍 '셀렙샵'을 열고 자체 브랜드 '셀렙샵 에디션'과 '씨이앤'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클렌징부터 보습까지 '약산성'으로 순하게~

아모레퍼시픽 순플러스
'5.5 밸런싱 라인' 3종

순플러스의 '5.5 밸런싱 라인'.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의 더마 브랜드 순플러스(SOON+)는 '5.5 밸런싱 라인'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5.5 밸런싱 라인'은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pH 5.5의 약산성으로 피부 균형을 맞춰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약산성 포뮬라의 클렌징폼, 스킨, 로션 3종으로 구성됐다.

'순플러스 5.5 밸런싱 워터'는 피부 장벽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라마이드를 함유해 촉촉하게 피부 결을 정리할 수 있다. '순플러스 5.5 밸런싱 에멀전'은 스쿠알란과 징크를 더해 수분 증발을 막고 보호막을 형성해 촉촉함을 더한다.

'순플러스 5.5 클렌징폼'은 쫀쫀하면서 풍성한 거품으로 약산성 저자극 세안을 개운하게 할 수 있다.

순플러스 5.5 밸런싱 라인 제품은 공통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워터'를 함유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기술력으로 검증된 식물성 락토바실러스 발효용해물이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장벽을 강화하는 효능을 갖고 있으며, 피부 보습 효과가 탁월하다. 또 건조로 인한 피부 손상을 케어하는 '알란토인'과 자극 받은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는 '레드베리펩타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보습, 진정,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김민서 기자